

#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졸업소요기간에 관한 연구: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건화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 Gender Gap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ime-to-Graduate: The Case of University A

KyunHwa Kim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Woos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제경영대학인 A대학을 대상으로 학업성과에 있어 성별격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3년도까지 학부정규 졸업생 1,005명을 대상으로 i)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평량평점과 ii)졸업소요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성별격차가 나타나는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본다. A대학의 경우 30여개 국적으로 이루어진 60-70%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성별격차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분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업성취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총평량평점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남미·아프리카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격차를 보였다. 둘째, 군복무로 인해 남학생들이 졸업이 늦어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빨리 졸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그룹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학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gender gap in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the case of University A, which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business.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 the gender gap with two factors representing academic performance: i) academic achievement(CGPA) and ii) time-to-graduate by using t-test. With a student body that is 60-70% international students of more than 30 nationalities, a sample of 1,005 graduates(from 2008 to 2023) in University A allows us to explore the gender gap by country. The results show that firstly, female students demonstrate a higher CGPA than male students and this result holds true for students from all countries. Except for the students from countries in Latin·North America/Africa, the gender ga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female students take less time to graduate than male counterparts. Interestingly, this result holds for students from every country including Korea where male students take longer to graduate due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there is a significant gender gap in time-to-graduate for every country. By confirming such a gender gap in academic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up a higher education policy that better reflects th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Keywords** : Gender Gap, Female Advantage, Academic Achievement, Time-to-Graduate, Higher Education

---

본 논문은 2023년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KyunHwa Kim(Woosong Univ.)

email: khkim@solbridge.ac.kr

Received July 28, 2023

Revised September 5,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 1. 서론

대학교육에 있어 성별격차의 역전현상(reversal of the gender gap)이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대학 입학의 57%정도를 차지하던 남학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44%수준으로 여학생들의 비중이 이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1]. 대학 졸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수가 남성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1960-70년대에 졸업생의 30-40%에 불과하던 여학생의 비중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학생을 따라잡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비중이 약 60%에 이르는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2].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대에 전체 남자 입학생의 수에 채 미치지 못하던 여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남학생 수를 넘어시기 시작하였고, 졸업생의 수 역시 2002년을 기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는 성비의 역전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4]. 또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남녀격차의 역전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남학생에 비해 뒤쳐져 있던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점차 상승하여 2009년을 기점으로 남학생을 추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Table 1) 참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학교육에 있어 여성들이 우위를 점하는 현상을 뜻하는 소위 “Female-favorable trend”[6,7]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업 및 학위취득에 있어 성별 격차를 확인하거나 그 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2].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우세하였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 여학생들의 진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육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공계열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과거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여학생들이 STEM분야에서 더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는 최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9,10]. 반면, 인문사회 계열 전공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남녀격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고, 여학생들의 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경영대학인 국내 A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격차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졸업시점의 총평량평균

Table 1. College Entrance Rate (%) [5]

Year	1)Female	2)Male	1)-2)
2004	79.7	82.8	-3.1
2005	80.8	83.3	-2.5
2006	81.1	82.9	-1.8
2007	82.2	83.3	-1.1
2008	83.5	84.0	-0.5
2009	82.4	81.6	0.8
2010	80.5	77.6	2.9
2011	75.0	70.2	4.8
2012	74.3	68.6	5.7
2013	74.5	67.4	7.1
2014	74.6	67.6	7.0
2015	74.6	67.3	7.3
2016	73.5	66.3	7.2
2017	72.7	65.3	7.4
2018	73.8	65.9	7.9
2019	74.5	66.6	7.9
2020	69.3	76.1	-6.8

\*Note: College entrance rate refers to the rate of students among high school graduates that enter a higher level of education in the corresponding year.

(CGPA)과 2)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총 소요기간(time-to-graduate)에 있어 유의미한 남녀격차가 나타나는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학생들의 우위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A대학의 경우, 60-70%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국제화 특성대학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30여개국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주 그룹이 학습배경을 주도함으로써 남녀 학업성취도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임과 동시에, 학업성취도에 있어 국가별 성별격차 존재 여부를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학교육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남녀격차는 향후 이들이 진출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격차에도 결과에도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6,8,13].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졸업소요기간에 있어 이러한 성별격차를 확인함으로써 각기 다른 그룹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대학과정과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대학교육에 있어 성별격차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

대학교육에 있어 성별격차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로, 여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적 성과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8,11,12,14-18].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격차는 고등학교 성적, 전공 및 수강과목, 학습경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Conger&Long(2010)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 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의 남녀격차를 분석하였는데, 대학 입학 후 여학생들이 첫 학기에 남학생들에 비해 GPA와 수강학점 모두 높으며, 이러한 남녀격차는 첫 학기 이후 더욱 커짐을 밝혔는데, 이는 고등학교 성적, 전공선택, 수강교과목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8].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 켄터키주의 한 사립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Stinebrickner&Stinebrickner(2012) 역시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한다[11]. 국내 특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서의 성별격차를 연구한 박혜영(2018) 역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는데, 성별격차는 전공만족도 차이에서 기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학습경험에 의해 발생함을 밝혔다[12]. 또한, Fan&Li(2005)는 대만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을 개설한 5개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이 더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남성 중심의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이 남성과 충분히 경쟁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때 해당 전공을 선택하기에, 여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10].

하지만, 학업성취에 있어 여학생들의 우위를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에 있어 이러한 성별격차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 다만,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비인지기술(non-cognitive skills)’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비인지기술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8,19,20]. 비인지기술이란, 규율성, 팀워크능력, 집중력, 넓게는 GRIT (Growth,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 Tenacity), 사회적기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9,21,22], 대학생 활에 있어 교실 안팎에서의 성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 생활 및 학습참여 수준에 있어 남녀격차가 발생하였는데, 김수현 외(2017)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 중 노트필기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더 집중하는 등, 수업 중 학습활동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3].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경험 차이를 분석한 변수연(2019)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시간 내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습참여를 보이며, 동료 및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16], 한안나(2017)는 비교과활동에 있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며, 이는 곧 교육적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24]. 더 나아가 한영석·김명소(2010)에 따르면, 셸프리더십의 하위구성요인 중 자기보상, 자기차별, 자기단서 및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성별격차에 입각하여, A경영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총평량평균, CGPA)와 졸업소요기간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여성들의 우위가 학업성취에 있어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개교이래 현재까지(2008년부터 2023년도 4월 기준) A대학의 학부 정규졸업생(신입생포함, 편입생 및 교환학생 제외) 1,005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A대학의 경우 B종합대학에서 경영학 중심의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2008년 신설된 이후, 매해 60-70%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A대학으로 유입된 학생들의 국적은 30여개에 이르는 특징을 가진다. 먼저, 졸업생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53.43%로 남학생의 46.57%를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Table 2〉 참조), 이는 몇 개년도를 제외하고(2008,2011,2020,2022) 근소하게 남학생들의 입학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Table 3〉 참조), 졸업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결과가 애초에 A대학의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많아서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졸업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높게 보고된다는 기존의 통계결과와 일치하며[2,4], 더 나아가 여

성들의 졸업률이 남학생을 앞서고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6,8,20,26). 국가별 남녀분포를 살펴보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졸업생 중 여학생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한국의 경우 여학생의 비중이 56.53%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졸업생을 많이 보유한 유럽국가의 경우 40%로 여학생의 비중이 다소 낮았으며, 세 번째로 많은 졸업생을 보유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여학생의 비중이 57.05%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체 졸업생 중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남아시아국가의 경우 68%로 위 5개 국가분류 중 가장 높은 여학생 비중을 차지하였다.

###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A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업성과에 있어 성별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대학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과를 나타낼수 있는 두 가지 요인, 1)학업성취도(총평량평점)와 2)졸업까지 소요기간(time-to-graduate)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총평량평점(4.5점 만점)을 활용하였다. 학점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준객관적 지표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12,27,28], 총평량평점에는 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시점까지 수강한 모든 과목의 학점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졸업소요기간은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Table 2. Ratio of Females and Males among Graduates (%)

	Female(n)	Male(n)	Total
Korea	56.53(238)	43.47(183)	100(421)
Southeast-South Asia	68.00(68)	32.00(32)	100(100)
East Asia	57.07(117)	42.93(88)	100(205)
Europe	40.00(104)	60.00(156)	100(260)
Latin-North America/Africa	52.63(10)	47.37(9)	100(19)
Total	53.43(537)	46.57(468)	100(1005)

\*n=number of graduates

\*Note: About 30 countries in University A are categorized into 5 regions according to the UCL directory, in which the list of countries belonging to each region is stated in the parenthesis as follows. Southeast Asia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Thailand, Vietnam), South Asia (Bangladesh, India, Myanmar, Nepal, Pakistan), East Asia (China, Japan, Taiwan), Europe (Azerbaijan, Kazakhstan, Kyrgyzstan, Russia, Ukraine, Uzbekistan), Latin-North America (Brazil, Peru, United States)/Africa (Cameroon, Eritrea, Ethiopia, Morocco, Nigeria, Republic of South Africa, Uganda)

까지 걸리는 총 연수를 뜻하는데, A대학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총 두 번의 입학과 졸업이 이루어지고, 군휴학 및 질병 휴학 등을 제외하고 총 4학기(2년)의 일반휴학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유형에 따라 상이한 졸업이수학점을 통제하기 위해 교환학생을 제외한 정규 학부생 중, 2학년 혹은 3학년을 마치고 입학하는 편입생을 제외한 신입생(졸업까지 평균 142.67학점을 이수)만으로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성별 변수를 이용한 t-검정을 실시하여 남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UCL 디렉토리 분류에 따른 지역별 국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Table 2〉 주 참조).

Table 3. Ratio of Females and Males among Freshmen (%)

Year	1)Female(n)	2)Male(n)	1)-2)
2008	50.94(81)	49.06(78)	1.89
2009	45.45(45)	54.55(54)	-9.09
2010	45.45(50)	54.55(60)	-9.09
2011	51.11(46)	48.89(44)	2.22
2012	43.85(57)	56.15(73)	-12.31
2013	47.06 (72)	52.94(81)	-5.88
2014	38.61(61)	61.39(97)	-22.78
2015	46.56(88)	53.44(101)	-6.88
2016	40.10(81)	59.90(121)	-19.80
2017	35.32(71)	64.68(130)	-29.35
2018	40.57(86)	59.43(126)	-18.87
2019	50.00(110)	50.00(110)	0.00
2020	57.93(95)	42.07(69)	15.85
2021	49.41(84)	50.59(86)	-1.18
2022	50.24(105)	49.76(104)	0.48
2023	43.70(59)	56.30(76)	-12.59
Total	45.79(1191)	54.21(1410)	-8.42

\*n=number of freshmen

## 4. 연구결과

### 4.1 학업성취도: 총평량평점(CGPA)

먼저, 전체 졸업생의 CGPA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은 3.49점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평균값은 3.21로 여학생 학점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여학생들의 우위를 설명하는 선행

연구[12,14,15,17,18]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점 구간별로 총평량평점 2.0 이상 그룹(1,001명, 상위 99.6%), 3.0 이상 그룹(722명, 상위 76.8%), 4.0이상 그룹(151명, 상위 약 15%)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총평량평점에 남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1%, 1%, 5%의 유의수준), 그룹 내 여학생의 비중은 각각 53.55%(536명), 60.11%(434명), 67.6%(102명) 수준으로, 고학점 그룹일수록 여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도의 국가별 성별격차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CGPA의 평균값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소 샘플 수가 적은 북남미·아프리카 국가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학업성취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조). CGPA 평균값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국가로, 동아시아 남자 그룹의 CGPA 평균은 2.78점으로 모든 국가와 성별 그룹을 통틀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두번째로 남녀 평균값의 격차가 큰 곳은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남아시아국가로, 남자 그룹의 CGPA 평균은 2.84점으로 전체 국가와 성별 그룹을 통틀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GPA of Graduates by Gender (Points)

	1)Female	2)Male	1)-2)	t-value	$\alpha$
Total	3.49	3.21	0.29	7.86	0.00***

\*p<.1, \*\*p<.05, \*\*\* p<.01

Table 5. CGPA of Graduates by Gender & Nationalities (Points)

	1)Female	2)Male	1)-2)	t-value	$\alpha$
Korea	3.45	3.31	0.14	2.54	0.01***
Southeast-South Asia	3.35	2.84	0.51	6.52	0.00***
East Asia	3.34	2.78	0.55	7.08	0.00***
Europe	3.54	3.28	0.26	3.77	0.00***
Latin-North America/Africa	3.58	3.42	0.16	0.658	0.52

\*p<.1, \*\*p<.05, \*\*\* p<.01

#### 4.2 졸업소요기간(time-to-graduate)

졸업소요기간에 있어 남녀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학생의 졸업소요기간 평균은 4.18년으로, 이는 남학생의 평균 4.86년에 비해 0.68년 더 빨리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6. Time-to-Graduates by Gender (Year)

	1)Female	2)Male	1)-2)	t-value	$\alpha$
Total	4.18	4.86	-0.68	-9.99	0.00***

\*p<.1, \*\*p<.05, \*\*\* p<.01

Table 7. Time-to-Graduates by Gender & Nationalities (Year)

	1)Female	2)Male	1)-2)	t-value	$\alpha$
Korea	4.69	5.94	-1.25	-12.16	0.00***
Southeast-South Asia	3.79	4.14	-0.35	-3.91	0.00***
East Asia	3.75	4.12	-0.37	-3.41	0.00***
Europe	3.79	4.15	-0.36	-5.01	0.00***
Latin-North America/Africa	3.85	4.83	-0.98	-2.79	0.01***

\*p<.1, \*\*p<.05, \*\*\* p<.01

이를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이 남학생보다 짧은 현상이 나타났고,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남녀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7> 참조). 졸업소요기간에 있어 남녀격차가 가장 크게 차이나는 곳은 한국으로, 평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5년 빨리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들의 군휴학으로 인해 졸업이 늦춰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현상은 통계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22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남학생이 평균 6년 0.9개월로, 평균 4년 6.1개월이 걸리는 여학생에 비해 약 1년 5개월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러한 결과는 졸업유예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데[30,31], 이를 두고 양정승(2014)은 남학생들이 군복무로 인해 휴학 등을 통해 졸업시기를 조정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 바 있다[31]. 길혜지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평균 24개월)을 제외하여 졸업소요기간에 있어 남녀격차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남학생들의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졸업소요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격차가 나타나며, 이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32]. 반면, 졸업소요기간 남녀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동남아시아-남아시아국가들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 0.35년 빨리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국가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보이는 평균 남녀격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여 졸업소요기간을 비교해 보면, 외국유학생의 경우 한국체류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학생들보다 휴학을 적게 하고 빨리 졸업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3.96년으로(남자 4.16년, 여자 3.78년-A대학의 경우 2018년까지 3.5학기 졸업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이에 맞게 제도적으로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계절학기를 활성화하였는데, 외국인 여학생들의 평균 졸업연수가 4년 미만인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전체 평균 5.24년에 비해 1여년 이상 빠르며, 내외국인간 졸업소요기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21.39$ ).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영대학인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총평량평점과 졸업소요기간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도에 있어 남녀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총평량평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샘플 수가 적은 북남미-아프리카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졸업소요기간의 경우 군복무로 인하여 남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빨리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였다. 이렇듯 국내 A경영대학의 사례로 확인한 학업성취도에 있어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는 이공계열 전공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여학생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Female-favorable trend”가 국적을 불문하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확인한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각 대학은 남녀 각 그룹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학과정 설계에 있어 이를 반영해야한다. 학업성취는 대학생활 전반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각기 다른 그룹에 대한 섬세한 이해는 관련 정책 설계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학과 졸업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있어 남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더 나아가 경제활동참여 및 결혼과 출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앞서 언급한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학 차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 남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의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은[33], 군복무 전후의 남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남녀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의 부재로 학업성취도의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베이 및 관련 추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학교육에 있어 남녀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타 대학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경영학에 국한된 하나의 대학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관련 통합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있어 전공 혹은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성별격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C. E. Freeman, Trends in Educational Equity of Girls and Women: 2004 (No. 2005-2016),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United States, pp.70-71.
- [2]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21 (Table 283), 2021, Available From: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1/tables/dt11\\_](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1/tables/dt11_)

- [283.asp](#) (accessed Jul. 19, 2023)
- [3]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Yearly College Enrollment, 2022,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B](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5&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B) (accessed Jul. 19, 2023)
- [4]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Yearly College Completion, 2022,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6&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B](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6&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B) (accessed Jul. 19, 2023)
- [5]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ollege Entrance Rate among Highschool Graduates, 2019, Available From: [https://gsis.kwi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QD0012&conn\\_path=12](https://gsis.kwi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QD0012&conn_path=12) (accessed Jul. 15, 2023)
- [6] C. Buchmann, T. A. DiPrete, "The growing female advantage in college completion: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1, No.4, pp.515-541, Aug. 2006.  
DOI: <https://doi.org/10.1177/00031224060710040>
- [7] T. A. DiPrete, C. Buchmann, "Gender-specific trends in the value of education and the emerging gender gap in college completion", *Demography*, Vol.43, No.1, pp.1-24, Feb. 2006.  
DOI: <https://doi.org/10.1353/dem.2006.0003>
- [8] D. Conger, M. C. Long, "Why are men falling behind? Gender gaps in college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627, No.1, pp.184-214, Jan. 2010.  
DOI: <https://doi.org/10.1177/0002716209348751>
- [9] J. C. Kamphorst, W. H. Adriaan Hofman, E. P. Jansen, C. Terlouw, "Explaining academic success in engineering degree programs: Do female and male students differ?",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104, No.2, pp.189-211, Apr. 2015.  
DOI: <https://doi.org/10.1002/jee.20071>
- [10] T. S. Fan, Y. C. Li, "Gender issues and computers: college computer science education in Taiwan", *Computers & Education*, Vol.44, No.3, pp.285-300, Apr. 2005.  
DOI: <https://doi.org/10.1016/j.compedu.2004.02.003>
- [11] T. Stinebrickner, R. Stinebrickner, "Learning about academic ability and the college dropout decis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30, No.4, pp.707-748, Oct. 2012.  
DOI: <https://doi.org/10.1086/666525>
- [12] H. Y. Park, "The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college study experiences, college environment and career prepa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atisfaction on majors", *The Korea Education Review*, Vol.24, No.3, pp.55-75, Sep. 2018.  
DOI: <http://dx.doi.org/10.29318/KER.24.3.3>
- [13] R. McNabb, S. Pal, P. Sloane, "Gender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land and Wales", *Economica*, Vol.69, No.275, pp.481-503, Aug. 2002.  
DOI: <https://doi.org/10.1111/1468-0335.00295>
- [14] J. H. Ko, J. H. Song, "Association analysis of admission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5, No.6, pp.1475-1480, Dec. 2014.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4.25.6.1475>
- [15] S. H. Ka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Vol.23, No.1, Mar. 2010.
- [16] S. Y. Byoun, "An exploration on gender difference in first year experience of Korean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3, pp.413-438, Jun. 2019.
- [17] H. S. Choi, J. C. Ha,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university admission factors: A University case in 2011", *Journal of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3, No.2, pp.343-351, Apr. 2021.
- [18] B. Y. Jeong, "Analyses of learning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Cyber Universities :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10, No.3, pp.127-150, Sep. 2004.
- [19] B. A. Jacob, "Where the boys aren't: Non-cognitive skills, returns to school and the gender gap in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1, No.6, pp.589-598, Dec. 2002.  
DOI: [https://doi.org/10.1016/S0272-7757\(01\)00051-6](https://doi.org/10.1016/S0272-7757(01)00051-6)
- [20] C. Goldin, L. F. Katz, I. Kuziemko, "The homecoming of American college women: The reversal of the college gender gap",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20, No.4, pp.133-156, Sep. 2006.  
DOI: <https://doi.org/10.1257/jep.20.4.133>
- [21] K. Zhou, "Non-cognitive skills: Potential candidates for global measuremen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52, No.4, pp.487-497, Dec. 2017.  
DOI: <https://doi.org/10.1111/ejed.12241>
- [22] P. Hoeschler, S. Balestra, U. Backes-Gellner, "The development of non-cognitive skills in adolescence", *Economics Letters*, Vol.163, pp.40-45, Feb. 2018.  
DOI: <https://doi.org/10.1016/j.econlet.2017.11.012>
- [23] S. H. Kim, Y. N. Bae, J. H. Lee,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 Based on the surveys in K-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 6, pp. 547-557, Jun.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547>
- [24] A. N. Ha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D universit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0, No.4, pp.111-138, Nov. 2017.

- [25] Y. S. Han, M. So. Kim, "Gender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5, No.2, pp.215-233, Jun. 2010.
- [26] K. K. Charles, M. C. Luoh, "Gender differences in completed school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5, No.3, pp.559-577, Aug. 2003.  
DOI: <https://doi.org/10.1162/003465303322369722>
- [27] J. C. Shin, T. S. Shin, J. S. Jung,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6, No.1, pp.287-313, Apr. 2008.
- [28] Y. J. Song, "College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its Relation to Study Strategies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8, No.4, pp.321-342, Nov. 2010.
- [29] Statistics Korea, 2022 Ma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Youth Additional Survey, Annual Report, Korea, pp.7.
- [30] T. H. Kim,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 graduation (graduation delay) based A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6, pp.3083-3092, Dec. 2014."
- [31] J. S. Yang, Four-year college graduates' postponement of graduation and their labor market outcome, KRIVET Issue Brie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pp.1-2.
- [32] H. J. Kil, S. H. Park, M. H. Park, "Analyzing the effects of a four-year undergraduate education and its student characteristics regarding delayed gradu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5, No.2, pp.57-80, Jul. 2018.
- [33] S. Y. Kim,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3, No.4, pp.33-62. Dec. 2006.

김 건 화(KyunHwa Kim)

[정회원]



- 2016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7년 8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미시경제, 산업조직론